

우리나라 最初 唯一한 一家 九封君

오문의 족친들은 타성씨와 통성명을 할 때 권가라고 하면 ‘양반이 군요’ 하는 말을 안 들어 본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때 우리는 자부심을 느낀다. 그러면 사람들이 무었때문에 권씨를 양반이라고 하는가? 스스로 분석해 본다.

첫째 권문의 4시(四始) 중 으뜸으로 삼는 것이 족보지시(族譜之始)이다. 성화보는 성종 7년(서기 1476년) 소한당 권람(權攄)이 선지를 받들어 자료를 수집하고 내종 서거정(徐居正)이 보완하고 경상감사 윤호(尹濤)가 안동부에서 간행한 것이 ① 성화보(成化譜)로서 우리나라 최초(最初)의 족보(族譜)임을 공인(公認)하고 있다.



성화보(성종7년) 안동부에서 발행한 우리나라 최초의 족보

둘째 오문(吾門)은 태사공(太師公)께서 사성(賜姓)받은 이후 고려조(高麗朝)와 조선조(朝鮮朝)를 통털어 수많은 정승판서(政丞判書) 당상관(堂上官)들께서 탐관오리 하나 없이 책무를 다하였을 뿐 아니라 빛나는 업적을 이룩하였고 이색(李穡) 등 학자들이 국제공을 동방의 삼달사(三達士) 중 으뜸이 रही었다.

셋째 조선조 문과급제자(文科及第者)가 하버드대 와그너 교수 논문에 안동권씨가 359명으로 전주이씨 다음으로 상위를 차지하였다. 과거에 급제하고 관직에 오른 선조도 많지만 흔탁한 정계를 멀리하고 향리(鄉里)에서 후학(後學)을 길렀으니 그 문화인(門下生)들이 나라에 이바지한 바가 크다.

전국 방방곡곡에 훌륭한 선조들이 서당(書堂)을 세우고 강학(講學)하던 유적(遺蹟)들이 무수히 많다. 사람들이 그 선성을 숭상(崇尚)하고 후손들은 선조(先祖)의 일을 자랑으로 보존(保存)하고 있다. 이것이 네 번째 이유일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나라 최초의 일가 구봉군(九封君)이 탄생한 것이다. 봉군에 책봉됨은 대제학(大提學) 다음으로 그 공로를 인정함이니 이것이 다섯째 이유이며 오문(吾門) 스스로 자랑으로 삼고 있다.

여기에 아홉 분의 봉군을 받은 선현(先賢)을 소개한다.

1.永嘉府院君 菊齋 文正公 權溥 영가부원군 국제 문정공 권보

첨의정승으로 상왕(上王)귀환에 힘써 봉군(封君)을 받고 공신(功臣)에 오르다

국제 문정공(文正公)은 추밀공(樞密公)의 증손이며 증 문하시랑 평장사(贈 門下侍郎平章事) 충헌공(忠憲公)의 손자이며 대제학(大提學) 찬성사(贊成事)를 지낸 증 첨의정승(贈 僉議政丞) 문정공(文淸公)의 아들로서 고려 원종 3년 송도 용수산 아래 사원(土園)에서 출생하였다. 15세에 진사에 급제하고 18세에 염진시(簾前試)에 급제하였으며 37세(충렬왕 24년)에 사립원 시강학사가 되고 이어 좌부승지가 되어 선법(大選)을 주관하고 충렬왕 27년 지공거(知貢舉)로 이제

현 등을 급제시켰다.

충선왕 원년에 48세로 첨의찬성사(贊成事) 우문관대제학(右文館大提學)이 되고 왕부단사관(王府斷事官)으로 무과 인선을 주관하였다.

58세에 수문전 대제학(大提學)이 되어 문형(文衡)이 되었고 이듬해 첨의정승(僉議政丞)이 되었다. 공은 상소하여 원나라 환관이 탈취한 토田을 반환케 하였는데 1320년 환관이 원제에 참소하여 충선왕이 티벳으로 유배되고 옥쇄도 빼앗아간 사건이 있었다. 공은 권한공(漢功, 都僉議政丞 體泉府院君)등과 힘쓰고 사위 이제현(李齊賢)을 원(元)에 보내니 상황이 귀환되었다. 이 공로로 공은 영도첨의사사(領都僉議司事) 영가부원군(永嘉府院君)에 추상익조동덕보리공신(推誠翼佐同德輔理功臣)의 작호를 받았다.

공은 충목왕 2년(한인 85세로) 고종하니 왕은 문정(文正)이란 시호를 내렸다. 개성 동쪽 발송리에 변한국대부인 문화유씨와 합편하고 이제현이 묘지(墓誌)를 지었다. 숙종 35년에 유허비를 세우고 영조 10년 충주 화인(文正)공자(孔子)를 주벽으로 주자와 안향을 배향한 도통사(都統祠)에 종향되었다. 또 개성의 한천사(寒泉祠)에 안향(安珦)과 국제공, 이색(李穡), 한수(韓脩), 송시열(宋時烈)의 위패를 배향했는데 고종 8년 서원 철폐령으로 폐철되었다. 1995년 음성군 생곡면 문충공(文忠公) 묘역에 복원하였다.

성리학의 창시 주자사서집주(朱子四書集註)를 간행하다

공은 충숙왕 원년 이진(李璥), 권한공(權漢功) 등과 함께 성균관에서 중국에서 들어온 1만5천권의 경적(經籍)을 고열하고 주자가례(朱子家禮), 주자서절요(朱子書節要) 등 주자사서집주(朱子四書集註)를 간행하고 널리 강습케 하였으며 동 4년 세대편년절요와 고려 왕조의 편년강목을 편제했다.

충숙왕 17년 공은 은대집(銀臺集) 20권을 완성하니 모두 공의 해박함에 탄복하였다. 충혜왕 후 3년 왕은 효행록(孝行錄)을 지어 민심을 계도하였는데, 효행록은 익재(益齋)가 서하고 양촌선생이 후서하였다.

공은 재상의 지위에 22년 있으면서 자만한 바 없고 사사(師事)한 것이 47년이라고 한다. 관직도 1품에 이르며 일가 복록도 고금을 통하여 드문 경우라 하여 사람들이 이 덕을 쌓은 응보(應報)라 부러워하였다. 이제현은 공을 온화하기 봄바람 같고 청공 같으며, 임금과 어머니 섬김이 깊었고 동료간 화목하며 독서하기를 좋아하였다고 평하였고 목은 이색(李穡)은 동방의 삼달사(三達士) 가운데 뛰어난 분이 라 하였고, 사씨(史氏)는 동방성리학은 선생으로부터 창도되었다 하였다. 오늘날 권문이 명문거족으로 명성을 떨친 것도 이처럼 공의 고매한 인품과 해박한 학문을 통하여 이루어낸 업적으로 다 공으로부터 위시하여 수많은 정승 판서 공신들이 탄생케 된 연유라 하겠다.

2. 吉昌府院君 昌和公 諱 準 길창부원군 창화공 휘 준

창화공의 호는 松齋이며 고려 충렬왕 7년(1281)에 국제공의 장자로 출생하여 18세에 대전행수(大殿行首)가 되고 진사에 급제하였다. 공은 여러 관직을 거쳐 검교첨의정승

(檢校僉議政丞)에 대우문 감춘추관사 상호군 삼한벽상공신(大右文 監春秋館事 上護軍 三韓壁上功臣)에 올랐으며 삼중대광 길창부원군(三重大匡 吉昌府院君)이 되었다.

충선왕 5년 왕이 충숙왕에게 전위하고 원나라 조정과의 사사(使事)를 공에게 명하니 공은 원에 자주 왕래하였다. 공은 찬성사(贊成事)에 이르고 지공거(知貢舉)가 되어 과시를 주관하며 문생(門生)을 길렀다.

충혜왕이 습위하자 정승 조적(曹積) 등이 난을 일으켰다. 조적이 패하고 왕이 복위하자 공은 부원군(府院君)에 올랐다. 충목왕 4년 충정왕이 즉위했으나 왜구의 침입으로 나라가 혼혼하여 강능대군을 즉위시키니 공민왕이다. 공은 공민왕 1년(1352년)에 질환이 깊어 향년 72세로 졸하였다. 왕이 진도(震悼)하여 조화를 거두고 공에게 창화(昌和)의 시호(諡號)를 내렸다. 장단군 진동면 서곡리에 장사하였다. 공의 묘소는 묘실에 벽화가 그려졌는데 훗날 봉사손이 화를 당해 외손 청주 한씨가 수호하게 되고 오랜 기간 살전되었다.

공에 대한 충선왕의 은전이 깊어 하사받은 것이 많았으며 또 충선왕은 공의 어린 넷째 아우 재(載)를 양자로 삼으니 정한공 왕후(王璵妃)이다. 충숙왕의 총애도 남달라 한천(寒泉)의 안향(安珦)의 구탁을 매입해 공에게 하사하여 부친(菊齋公)을 효양케 하니 한천의 사원이 강화(講學)처가 되고 공은 문하생(門下生)을 많이 배출하였다.

공은 효행이 지극하여 1326년 문인들과 부친의 민수무강을 기원하는 계원록(桂苑錄)을 만들고 1342년 부친 국제공을 도와 효행록(孝行錄)을 편수하였다. 공의 사적은 국제공과 함께 고려사(高麗史)에 입전(立傳)되고 고려 명신전(名臣傳)에 올랐으며 동국여지승람의 안동부권 인물조에 올랐다.

공은 남에게 베풀기를 널리 하며 불문(佛門)에 시주하면서 30여년 동안 10여명의 승려를 봉양하였다. 장자 현복군(玄福君) 형(衡)은 1323년 원나라에 가 전지를 도왔으며 장녀가 충숙왕 수비가 되므로 현복군에 책봉되었고 첨의찬성사(僉議贊成事)에 올랐다. 차자 원정공(原靖公) 적(適)은 충혜왕을 옹립하는데 공을 세워 찬성사가 되고 화산군(花山君)에 책봉되었으며 공민왕 10년 홍건적의 난에 승병을 거느리고 공을 세우니 단성보절공신이 되고 길창부원군(吉昌府院君)에 진봉되었으며 첨의평리(僉議評理)가 되었다.

벽화묘(壁畵墓)의 발굴과 말엽(末葉)의 왕실(王室) 청주 한씨로부터 문종묘 안에 벽

화채석이 보인다고 중앙박물관 정양모 실장에게 신고되어 1991. 1. 14 현지답사하고 문화재관리국은 3월 청주 한씨의 허락을 득하여 파주군 진동면 서곡리 산 112번지의 분묘의 발굴조사에 들어갔다. 앞에 문비석(門碑石)이 있고 석실내부는 285x118x128cm로써 사방 벽면에 인물상(人物像)을 배치하고 천정에 성신도(星辰圖)가 있었다. 인물상의 정부(眞部)에는 동물의 12간지가 그려져 있다. 북벽(北壁) 중앙에 정좌상의 인물이 묘의 주인공으로 추정되고 동서 양쪽벽에 각 5명의 인물(人物)이 홀(笏)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다. 성신도는 북두칠성과 삼태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출토된 유물은 토기 및 자기편 등이며 동전은 13종으로 개원통보(開元通寶) 등 중국 당(唐) 고조(高祖) 때부터 송(宋)나라 휘종(徽宗) 때까지의 화폐였다.

그런데 묘의 주인을 찾는데 중요한 단서인 광중에서 묘지석(墓誌石)이 발견되었다. 지석은 4조각으로 분리된 채 출토되었는데 ‘증시창화권공묘명(贈諡昌和權公墓銘)’이라 제역이 횡으로 써 있었다. 바



창화공벽화(장단군 진동면 서곡리)

로 국제공(菊齋公)의 장자인 삼한벽상공신 삼중대광(三韓壁上功臣 三重大匡) 길창부원군 권준(吉昌府院君 權準)이 되고 공을 세우 광복군(廣福君)에 봉호되었다.

이처럼 창화공 묘를 청주 한씨가 문열공 한상질공의 묘로 오인하여 600년 동안 수호한 이유가 있다. 창화공 권준의 둘째 아들인 원정공 권적의 사위가 한상질의 부친 한수(韓輔)이며 한수의 차남 상질의 손자 영의정 명회(明會)의 딸들은 예종의 비 장순왕후(章順王后)이며 성종의 비 공혜왕후(恭惠王后)가 되었다.

고려말기 공민왕은 노국공주가 죽고 남색(男色)에 빠져 충신 김홍경을 사랑하게 되고 김홍경을 통해 귀족미남으로 자제위(子弟衛)가 설치되었는데 공민왕은 자제위 흥



공지를 주벽으로 국제공을 배향한 도통사(음성군 생곡면 방축리 능인)

륜 등을 악비와 성행위토록 하면서 었보았다. 그런데 악비가 흥륜의 아이를 잉태하자 공민왕이 흥륜을 죽이려 하자 흥륜은 공민왕을 시해하였다.

창화공은 현복군 형(衡)과 원정공 적(適)을 두었는데 현복군은 장녀가 충숙왕의 수비(壽妃)가 됨에 현복군(玄福君)에 책봉되었으며 광정대부 첨의찬성사(匡靖大夫 僉議贊成事)에 이르렀다. 원정공은 화산군(花山君)에 책봉되고 홍건적이 침입하여 승병을 이끌고 세운 공으로 단성보절공신 삼중대광 길창부원군(吉昌府院君)에 봉군되었다.

창화공의 손 현성군(玄城君)용(鏞)의 아들인 진(鎭)이 자제위에 선발되어 공민왕의 총애를 받았는데 이 사건으로 진(鎭)공이 화를 입게 되었으며 권준의 부친도 원주로 유배되었으며 후에 자객에 의하여 화를 당하였다.

이런 와중에서 창화공 손들은 뽕뽕이 흩어져 창화공의 묘제(墓祭)를 외손간인 청주 한씨 집안에 부탁했을 것이고 창화공 제사를 지내주던 청주 한씨는 세월이 흘러 당대 명문가였으므로 대제학 한상질묘로 오인하고 1700년대에는 묘 앞에 비석을 세웠다.

3. 廣福君 諱 宗頂 광복군 휘 종정

공은 출가(出家)하여 고려말 승군(僧軍)의 총사령인 양가도총섭(兩街都總攝)이 되고 공을 세우 광복군(廣福君)에 봉호되었다.

4. 永嘉府院君 忠靖公 諱 阜와 耆老所之始 靖簡公 영가부원군 충정공 휘 고 기로소지시 정간공

충정공은 호가 성재(誠齋)이고 충렬왕 20년에 국제공(菊齋公)의 차자로 출생하였다. 고려사에 공은 천성이 관후(寬厚)하고 예도



계림부원대군 정현공 묘소(파주시 장단군 길동면 하도리)

(禮度)가 바르니 공민왕이 어질다고 칭찬하고 수평성재(壽平誠齋)를 써서 하사하였다. 시문(詩文)이 정교하고 서예(書藝)에 능했으며 목은 이색(李穡)과 깊이 사귀었다. 관직은 검교문하시중(檢校門下侍中) 영서연사(領筵筵事) 상호군(上護軍) 영가부원군(永嘉府院君) 수성필조협모공신(輸誠弼作協謀功臣)이다. 우왕 5년 86세로 졸하니 충정(忠靖)의 시호가 내려졌다. 이색의 헌시에서 “백미의 호합한 기운 소시부터 적수가 없고 젊어서 재상의 계림윤(鷄林尹)이 되었다”고 하였다. 이색과 정도전이 만사(輓詞)를 지었다. 아들은 판서공 엄(嚴) 군부정랑공 간(侃) 정간공 회(僞)이다.

耆老所之始 靖簡公 휘 僖

정간공(靖簡公)은 공민왕 10년 홍건적이 10만 대군으로 침략하니 왕은 안동으로 몽진하고 공은 호군에 임명 되었으며 권준의 부친도 원주로 유배되었으며 후에 자객에 의하여 화를 당하였다. 이런 와중에서 창화공 손들은 뽕뽕이 흩어져 창화공의 묘제(墓祭)를 외손간인 청주 한씨 집안에 부탁했을 것이고 창화공 제사를 지내주던 청주 한씨는 세월이 흘러 당대 명문가였으므로 대제학 한상질묘로 오인하고 1700년대에는 묘 앞에 비석을 세웠다.

대중 원년 검교의정부좌정승 겸 수문전태학사가 되었다. 태종 5년 87세로 졸하니 상왕과 태종이 사제(私祭)하고 정간(靖簡)의 시호를 내렸다.

정간공은 4남을 두었으니 장남은 공경공 화(和)이고 차남은 평후공 충(衷)이며 삼남은 문충공 근(近)이며 4남은 매향공 우(遇)이다. 장남 공경공 화(和)는 도성측조 제조(提調), 삼사우복야 상의중은 천성이 관후(寬厚)하고 예도

이기(二己,華嚴宗 禪師)와 함께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을 이루니 양존이 발문을 지었다. 공경공(恭景公)의 아들은 시조 태사공의 묘소를 발굴한 평창

공(平昌公) 응(雍)이다. 차남 평후공(平厚公) 충(衷)은 공양왕 때 공조판서, 태조 1년 개국원종공신으로 호조전서(戶曹典書), 태종 14년 공조판서(工曹判書), 세종 2년 의정부찬성을 지내고 75세에 졸하니 평후(平厚)의 시호가 내려졌다.

3남 양충(陽村) 문충공(文忠公) 근(近)은 이색(李穡)과 포은(圃隱) 정몽주에게서 수학하고 공민왕 17년 전시(殿試) 급제하고 입학도설(入學圖說)을 저술하였다. 40세에 양촌 별업에서 은거하며 시(詩), 서(書), 역(易), 춘추(春秋)의 전건록(淺見錄)을 저술하였으며 54세에 예기천견록(禮記淺見錄)을 완성하였다. 주역천견록은 보물 550호로 지정되고 시,서천견록은 보물 573호로 지정되어 있다. 오경천견록(五經淺見錄)은 한국유학의 경학적(經學的) 신기원을 열어주며 독립된 학통을 형성하는 기반을 확립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태조 5년 명나라에 가 응제시 24수를 지어 명제(明帝)가 노실수재(老實秀才)라하였다. 이듬해 귀환하니 화산군(花山君)으로 봉해졌다. 태조 7년 개국원종공신을 받고 예문관추주관사와 대사헌(大司憲)이 되었다. 태종 1년 길창군(吉昌君), 예문관대제학(藝文館大提學)이 되었으니 조선조의 전문형지시(典文衡之始)인 것이다.

태종 3년 삼국사략(三國史略)을 편수하고 보문각대제학(寶文閣大提學)에 이르렀다. 태종 6년 집현전대제학(集賢殿大提學) 지정연춘추관사 세자이사(知經筵春秋館事世子貳師)가 되었다. 태종 9년 58세로 졸하니 시호를 문충(文忠)으로 내렸다. 세종 26년 음성으로 이장하고 안숙공(安肅公)이 귀히 됨에 순충적보조공신 대광보국공숙대부(大匡輔國公肅大夫) 길창부원군(吉昌府院君)으로 추증되었다.

문충공은 4남을 두었으니 장자 총제공(摠制公) 천(踐)은 우군동지총제로 보임되었다.

차남 지재공(止齋公) 제(躋)는 태종 14년 친시문과 장원(壯元)하고 세종 17년 이조판서(吏曹判書), 세종 20년 예문관대제학(藝文館大提學)이 되고 세종 24년 고려사를 찬수하고 세종 27년에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를 지어올렸다.

《2면에 계속》

安東權氏宗報

宗是：崇祖理念確立・愛族思想鼓吹
後學啓導寄與・社會倫理培養

발행인 權正達 편집인 權聖晳 인쇄인 權寧雄

발행장소：安東權氏大宗院：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05-3(2층)
우：130-820 전화 (02) 2695-2483/4 FAX (02) 2695-2485
安東事務所：경상북도 안동시 태화동 418-1(3층)
우：760-905 전화 (054) 854-2256 FAX(054)854-2257
테시모 연락처：(054)859-2346 안동시 북문동 24-1(서재)

E-mail：ankwonjung@yahoo.co.kr / andongkwon@paran.com

編輯委員	권계동, 권오복, 권학재
記 者	권범준, 권혁세, 권경일, 권오인
지문위원	권중달 권영한 권태하 권영실 권오창

예금주 및 계좌번호(안동권씨 대종원)
권 경 석 국민은행 448601-01-378019
(중앙전회) 농 협 076-02-247343

중보사(개인독자)
우체국：중보사
010108-01-000369

각 문중임원은 직책명시 재가입 바랍니다

www.andongkwon.org 안동권씨대종원 홈페이지

안동권씨홈페이지 운영자를 교체하여 활용에 편리토록 하였으니 많이 이용바랍니다.

- 홈페이지 관리자 임명 재등록의 이점
파주회와 종친회는 각 협의회를 신설하였습니다.
문중의 각 회장님들께서는 홈페이지 담당자(회장, 총무 등)를 임명하셔서 본 홈페이지 직책명시, 재 등록하면 등급을 상향합니다.
※ 등급이 상향되면 사진과 내용을 올릴 수 있습니다.
- 회원광장 및 회원대화방 신설(등급 상향시 이용)
① 게시판 회원광장에 각 문중의 행사내용을 사진과 함께 올릴 수 있습니다.
② 게시판 회원대화방에 각자의 의견과 알림 그리고 연구 논문을 게시할 수 있으며 관심 있는 분끼리 대화 가능합니다.
③ 포토갤러리는 수필과 사진을 소개하면 모두가 즐겁습니다.
※ 문중의 중책을 맡으신 분은 회원가입 후 직책을 명기바랍니다.